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2월 24일)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열반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주 자승 스님은 직접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직접 쓴 금관 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렸다. 사진은 열반상 앞에서 정근하는 순례단의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열반지서 '불교중흥' 발원 공양 올리다

인도순례단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서 법회 봉행

회주 자승 스님이 직접 휘호한
'한국불교 중흥발원' 가사 공양
부처님 유훈 합송하며 재발원

눈물과 다짐 '환희 법석' 봉행
순례단서 '전법행' 발언 이어져

인도 쿠시나가르=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오른 쿠시나가르에서 순례단은 다시 한번 불제자로 불교중흥의 발원을 하며 의지를 다졌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은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열반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인도순례길에 오른 지 29일차, 누적거리 총 689km, 인도 현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순례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환희로움으로 가득찼다.

인간붓다로서 육신의 죽음 앞에 불제자들인 순례단은 부처님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눈물도 흘렸지만, 그보다 이후 부처님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전법 포교의 마음을 다잡았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께 그 마음을 담은 가사를 올리는 열반당 참배로 시작됐다. 회주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직접 쓴 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렸다.

정근 후 열반당 앞으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께 불교중흥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함을 고했다.

'여래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다. 육신은 여기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진리와 깨달음의 길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내가 열반한 후에는 그동안 설한 가르침이 곧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이 진리를 지켜 무슨 일에나 진리대로 행동하라. 수행자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함께 내 교법을 지키고 함께 배우며 함께 수행하고 부지런히 힘써 도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순례단은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유훈을 읊으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진오 스님의 대표낭독으로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에게 불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올렸다.

순례단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부모님 같은 유훈을 가슴깊이 새긴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온 순례단과 불자들은 먼 곳에 있더라도 부처님과 함께 심장 뛰기를 발원한다"며 "이 순례공덕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 수행하고, 봉사하며, 생활불교, 자립불교, 세상에 이익을 주는 한국불교가 되길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순례단은 열반당을 비롯해 아난존자 스투파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부처님 열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대변인 종호 스님의 설명을 들었다. 부처님께서 당시 번성한 바이샬리나 왕국의 수도가 아닌 작은 곳이었던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신 이유가 왕족 등 고위층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부처님 열반의 가르침을 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부분에서 순례단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종호 스님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으로 보이신 것은 법신은 상주한다는 것과 모든 중생들에게도 불성이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 행동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열반의 의미"라고 했다.

순례단에서는 이런 마음을 전법 포교로 잇자는 말이 이어졌다. 4조 조장 설암 스님은 "회주 스님과 서울에서의 공양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에게 얼마나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봤냐'는 질문에 당시 답을 못했다"며 "보드가야에서 회주 스님의 '참담한 현실에 보았다'는 말을 경책으로 삼고 정진하겠다. 먹물 옷이나 가사를 입어서 불자들에게 마음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되새겨보고, 한국불교가 인도의 화석화된 불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을 드신 곳에서 다시 한번 전법과 포교의 의지를 다진다"며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런 순례단에 대해 지난 카쿠타강에서 마중나온 미얀마 가네시아로 스님은 부처님 사리와 가사 등을 순례단에 전했으며, 이에 회주 자승 스님은 순례단 장군죽비와 팔만대장경판을 선물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한국 불자들도 대거 참여하여 마음을 모았다.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과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 개운사 주지 보림 스님을 비롯한 각 사찰 신도들이 열반당 입구부터 순례단을 환영했다. 또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및 관계자들과 동국대 일산병원 지도법사 능지 스님 및 의료진도 함께 했다.

순례단은 이날 법회에 이어 모든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알린 부처님 탄생 의미가 서린 룸비니와 인간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향취가 남은 카필라바스투 등을 참배하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신 기원정사를 향해 행선을 이어간다.

〈관련특집 4·5면〉

조계종 '아미타 요양병원' 오는 5월 3일 개원한다

진우 스님, 3월 7일 현장 점검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직접 살펴



요양병원 리모델링 현장 점검 중인 진우 스님.

조계종 직영 스님 전용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이 5월 개원을 앞둔 가운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병원을 방문,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3월 7일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에서 시설 브리핑과 라운딩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병원 개보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기반시설은 안전한지, 이용자들에게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을 세심히 챙겼다. 꼼꼼한 눈으로 병원 구석구석을 직접 살핀 진우 스님은 관계자들에게 "스님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완벽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종단 직영 요양병원은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2008년 7월 故각현 스님의 원력으로 개원한 파라미타 요양병원을 조계종이 승계하면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토지 2만6363m² (7975평), 건물 8492m² (2569평)로 지하 1층, 지하 6층 규모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노후화된 일부 시설을 대폭 수리함은 물론 스님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자 여유공간을 1인실로 변경하는 등 각종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중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198개까지 병상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야외 휴식공간 마련을 비롯해 차차 장례식장을 보수하고 다비장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을 증축할 계획도 갖고 있다. 추후 80병실 이상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제2병동을 신축, 스님들의 노후 복지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진우 스님은 "종단 첫 번째 사업 성취로서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완벽하게 준비,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이 다른 사업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핵심종책 사업들도 빠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은 5월 3일 오후 2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안성=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일 정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2박 3일
장 소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연수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1일차 (9월 6일,수)	2일차 (9월 7일, 목)	3일차 (9월 8일, 금)
09:00~12:00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시연까지'	마음불사 도량불사 스님들의 고민 톡!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한마음과학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수행 법회 사찰 운영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지혜를 밝히는 법회 기획부터 실습
▶ 한마음과학 특강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